‘달마가 동쪽으로 간~’ 한국영화 백년사 10選에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10월 3~12일 영화의 전당 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나라 불교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두 편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981년 작 ‘만다라(감독 임권택)’ 와 1989년 작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감독 배용균, 이하 달마가)’ 을 상영된다.

‘만다라’ 는 ‘한국영화 회고전-정일성 감독전’ 에 선정됐으며, ‘달마가’ 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10편을 선정한 ‘특별기획1-한국영화 100년사의 위대한 정전 10선’ 에 선정됐다.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이 만든 ‘만다라’ 는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협업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으로 꼽힌다. 특히 정일성 감독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언제나 ‘만다라’ 를 첫 번째 작품으로 놓는다. 두 거장이 빚어낸 작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했지만 ‘만다라’ 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점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영화 세계가 지닌 위대함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가의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번뇌와 만행의 길을 담담하게 스크린에 옮긴 영화 ‘만다라’ 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깨달음에 이르려는 법운 스님(안성기)과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무애한 해탈의 길을 구하는 지산 스님(전무송)의 구법의 길을 그린 영화다.


‘특별기획1-한국영화 100년사의 위대한 정전 10선’ 에 선정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한국영화 회고전-정일성 감독전’ 에 선정된 ‘만다라’ .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특별상영
부탄, 태국 등 불교권 국가 영화 다수 출품

영화 만다라는 개봉 당시 대종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지산 스님 역의 전무송은 남우조연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영화는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해 한국의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는 스토리 중심의 플롯대신 회화적인 영상과 상징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한 영화로, 한국영화 역사상 전대미문의 시도이자 예외적 미학의 성취로 회자된다. 영화 ‘달마가’ 는 1989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황금표범상)을 수상한다. 역시 우리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큰 계기였다.

경북 안동 영산암에서 촬영한 ‘달마가’ 는 기봉 스님의 구도자적 번뇌와 간절한 수행을 독창적인 철학과 미학으로 담아내고 있다. 깊은 산사에 노장 혜곡 스님과 동자승 해진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젊은 기봉 스님이 찾아온다. 기봉 스님은 혜곡 스님과 끊임없이 문답을 주고받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이어가지만 여전히 세연 속에 두고 온 욕망과 미련의 번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혜곡 스님과 기봉 스님의 설법과 독백은 영화의 백미다. 영화 ‘달마가’ 의 이번 상영은 배용균 감독의 오랜 칩거로 인해 어렵게 성사되었다고 한다.

불자들에겐 영화이기 이전에 법문으로 다가오는 두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은 불자들에게 더 없는 호사라고 할 수 있다.

85개국에서 299편의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에는 네팔, 부탄, 티베트 등 불교권 국가들의 영화가 다수 출품됐다.

태국 영화로는 태국 불교사원의 비리를 추적하는 ‘컴 앤 씨(감독 · 노타폰 분프라콥)’ 와 태국 유소년 축구팀의 동굴 조난을 다룬 ‘동굴’ 이 있다.

티베트 출신 감독 페마 체덴 감독의 신작 ‘풍선’ 도 소개된다. 이번 신작 역시 전작인 ‘타를로’ 와 ‘진파’ 에서 보여준 티베트인들의 삶과 가치관을 다루지만 전작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의 영화도 볼 수 있다. 파우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교실 안의 야크’ 다 해발 4,800미터에 56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루나나에는 작고, 초라한 학교가 있다. 수도 팀부에서 나고 자란 도시 남자 우겐 선생의 꿈과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는 인간의 꿈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두 교황’ , ‘모성’ 등 여러 종교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도 다수 볼 수 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일반 상영작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와 부산은행에서 예매할 수 있다. 1666-9177.

‘3.1’ 100주년에 보는 용성 스님 발자취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용성문화제’

용성 스님의 3가지 교화지침인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를 목표로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려온 용성문화제가 올해는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다. 서울 대성사는 10월 5일 경내에서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용성문화제’ 를 개최한다.


용성 스님 한글경전.

미술제와 음악제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용성 스님 展 △청소년 그림축제 △용성산사음악회 △부대프로그램(차 시연, 미술전시,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3.1 만세운동 당시 만해 스님과 함께 33인 민족대표 중 불교대표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용성 스님의 행적과 역사를 고증하는 ‘용성 스님 展’ 에서는 3 · 1만세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용성 스님의 수형카드와 용성 스님의 한글경전 및 서적 30여 점 등 용성 스님과 관련된 사진과 책 등이 전시된다. 중복되는 서적 일부는 일반 공개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했다.

△미술제에서는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에 황규철(회화)과 서칠교(조각)를 선정했고, 청년작가상에 황두현 작가와 공로상에 이인자 교수를 선정했다.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은 용성 스님의 세 가지 교화지침 중 ‘불교의 지성화’ 를 되새기는 것으로 청년불교미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다.

10월 5일 서울 대성사 경내
용성 스님 展, 그림축제 등
수형카드, 한글경전 등 전시

청소년 그림축제도 열린다. 용성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업적이 크다. 그 뜻을 잇는 청소년 그림축제는 3.1 독립선언과 용성문화제를 주제로 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4시간 동안 열린다.

국회의장상, 국회부의장상, 문화체육부장관상, 총무원장상, 교육원장상, 포교원장상, 서울시장상, 서울시교육감상(초, 중), 서초구청장상, 대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음악제에서는 ‘용성 산사음악회’ 가 열린다. 불교대중화에 앞장섰던 용성 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작곡하며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섰다. 기존의 용성문화제에서 선보였던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 를 시작으로 대중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찬불가와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부대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전통차 시연과 미술제 수상작 전시, 예술체험 등이 열린다. (02)9475-9550. 박재완 기자

붓길과 마음길은 하나

김양수 개인전 ‘에움길 끝에서’
대구 봄갤러리 10월 9~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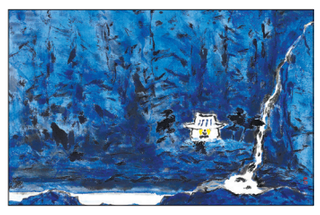
대중의 마음에 평온과 고요를 찾아주는 선화와 선시로 한국화의 새로운 화풍을 열고 있는 김양수 화백이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봄 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에움길 끝에서’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에움길’ 이다. ‘길’ 을 주제로 한 새로운 방향성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텅 빈듯하지만 꽉 차있고, 꽉 차 있는듯하지만 텅 빈 그림과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선시 3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신작들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깊은 먹을 덜어내고 청색을 중심으로 한 청량감 있고 가벼운 느낌의 그림들이다.

“가을을 몰고 온 고추잠자리의 날갯짓 / 부산한 텃밭의 허공을 우러르고 / 푸른 하늘 맑은 여백 위로 흐르는 / 새털구름 가는 길은 어디일까 // 하늘길 / 물길 / 바람길 / 인생길 / 그 어느 길도 어찌할 수 없는 길에서 수많은 애환이 녹아내린 인연을 / 가슴에 매만지며 길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준비했다”

우리는 길 위를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연을 만들어 가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길 위에서 시작되어 길 위에서 끝난다. 그림 속의 물길 바람길 인생길은 수많은 사연이고 수많은 인생이다. 김양수 화백은 그 길을 에움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길이 김 화백에게는 붓이 가는 길이며 마음이 가는 길이다. 그리고 화가에겐 그 길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김양수의 그림이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중국 중앙미술학교 벽화과에서 수학하고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에서 30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시화집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고요를 본다〉, 〈새벽 별들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 등을 출간했다. 053-622-8456. 박재완 기자



2019 가을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시대와 소통하고 세대와 공감하는

BTN 가을 개편

2019.10.07(월) ~

10/10 첫 방송!


붓다인사이드
본 (목)13:00
재 (목)22:30,(일)13:00
스님 변호사 교수 네 명의 패널들이 펼치는 가감없는 유쾌 명쾌 상쾌한 신개념 불교시사 토크쇼

10/8 첫 방송!


명상, 세상을 보다
본 (화)13:00
재 (화)22:30,(일)09:30
세계적인 명상 거장들이 말하는 21세기 최고의 건강법,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는 프로그램

10/9 첫 방송!

설화견문록
본 (수)09:30
재 (수)19:30,(일)06:30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비하고 다양한 불교설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난다. 글로벌 발굴단과 함께하는 불교설화 현장발굴스토리

10/10 첫 방송!

출가
본 (목)09:30
재 (목)19:30,(일)07:00
감히 쉽게 물어 볼 수 없었던 스님들의 출가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발원하는 한국불교초심회복 프로그램

10/7 첫 방송!


천년의 여행
본 (월)09:30
재 (월)19:30,(금)19:30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있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고화질 영상유산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10/9 첫 방송!

활안스님의 천태지자대사 선교관
본 (수)07:30
재 (수)16:00,(토)20:00
지자대사는 선(禪)과 교(敎)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활안스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들어보는 천태지자대사의 선교관.

10/8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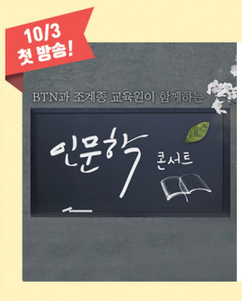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 정혜선원 호연스님
본 (화)08:30
재 (화)17:00,(일)21:00
불교경전중의 제일(第一)경전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을 행복포교사 정혜선원 호연스님에게 배우는 기회.

10/7 첫 방송!

광우스님의 마음수행법회
본 (월,화,수)04:10
재 (목,금,토)06:30
광우스님의 새 강의가 선보인다. 불교수행의 총체인 지관(止觀) 좌선법에 대해 광우스님의 설명으로 쉽게 공부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10/9 첫 방송!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본 (수)13:00
재 (수)22:30,(금)15:00
명상에 대해 명성 있는 국내 명상가들이 총집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각 명상에 대한 종류와 일상생활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0/3 첫 방송!


BTN과 조계종 교육원이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본 (월)14:00
재 (월)22:30,(토)07:30
불교와 인문학의 환상적인 만남 안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본다.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B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